

이탈리아 정국 불안 전세계 금융시장 흔들나

유럽 넘어 미주·아시아 영향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 유로 1.2달러 아래 급락세

이탈리아 정국 불안이 유럽 경제 향방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유럽을 넘어 미주, 아시아 금융시장까지 뒤흔들고 있다. 29일(현지시간)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국채와 유럽·미국 금융주, 유로화를 팔아치우고 미국·독일 국채, 미국 달러, 스위스 프랑 등 안전자산에 사들였다.

뉴욕 증시의 금융부문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금융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7% 급락했다. JP모건체이스 주가는 4.27%, 모건스탠리는 5.75% 떨어졌다. 밀라노 증시의 은행주들도 4~5% 이상 급락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 차(스프레드)는 장중 최대 3.2%포인트(320bp)까지 치솟았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2.7594%까지 하락했다. 유로는 급락세다. 유로화 환율은 작년 7월 이후 최저인 유로당 1.1539달러까지 밀렸고 스위스프랑에 대해서도 작년 10월 이후 최저인 유로당 1.14403프랑까지 내렸다. 아시아 시장도 30일 오전 급락세를 보였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일본 닛케이지수는 1.52% 내렸고 한국 코스피는 1.82%, 홍콩 항셱지수는 1.45%, 상하이 종합지수는 1.47%의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탈리아 정치 혼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탈리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전방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이 3월 총선 승리 이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미 수개월째 지속됐다. 하지만 오성운동이 극우 동맹과 손을 잡자 시장의 우려는 유로존 3번째 경제국인 이탈리아에 유럽연합(EU)과 유로존을 반대하는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번졌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유럽이 2012년 그리스발 재정위기의 늪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점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부채도 많은 이탈리아가 흔들린다면 유럽과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제 규모는 1조7169억유로(2141조원)로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로존 3위다. 그리스(1777억유로)의 10배 수준이다. 여기에 이탈리아 국가 부채는 2조3023억유로(2871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를 넘는다. /연합뉴스

늘어가는 일본, 외국인 일자리 대폭 개방

취업자격 최장 5년 추가

저출산 고령화로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사실상 상·중·하 노동 분야의 문호 개방에 나선다. 고령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대책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기능실습 제도로 길게는 5년간 연수할 수 있는 것을 2019년 4월 이후에는 기능실습을 마쳤더라도 최장 5년의 취업자격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선 연수 인정 기간이 5년 이어서 이 기간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으로선 기간 불만을 나타냈다. 니혼케이자이는 "현재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대책은 치안 측면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에 한 정돼왔다"며 "실질적 단순 노동 분야 수용은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을 두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추가 취업자격을 부여해도 일본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욱 문을 열기로 /연합뉴스

푸틴 비판한 언론인

해외 도피 중 피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러시아의 저명한 언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살해당했다.



파리 난민 텐트촌 30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텐트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백명을 분산시킨 가운데 한 프랑스 CRS 경찰관이 텐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언론인 아르카디 바브첸코(41·사진)가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건물 입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 지던 도중 숨졌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바브첸코는 빵을 사러 집을 나섰다 등 에 고환이 손 쓸 여력 없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회색 택시업에 야구모자를 쓴 40대 남성의 몸타주를 작성해 행방을 쫓고 있다. 안드리 크리슈첸코 키예프 경찰서장은 바브첸코 살해 동기와 관련, "우선적으로 그의 직업 활동"이라고 현지 TV 방송에 말했다. /연합뉴스

말레이기 4년만의 수색도 빈손

항공 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꼽히는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에 대한 추가 수색작업이 4년여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완전히 종료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해양탐사업체 오션인피니티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인도양 해저에서 MH370편의 잔해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올리버 플링깃 오션인피니티 최고경영자(CEO)는 "수색작업에 앞장 선 동기 중 하나는 유족에게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등록 외국인 '성역' 美 시카고도 단속...156명 체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를 표방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몇년간 시카고 일원 37개 지역사회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불법 이민자와 추방 대상자 15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 74명은 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남성 147명 여성 9명이며,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64세 사이로 전해졌다. 출신국 별로 보면 멕시코 125명, 과테말라 10명, 폴란드 6명, 엘살바도르 4명, 온두라스 4명, 필리핀 2명, 에콰도르·자메이카·요르단·리투아니아·뉴질랜드 각 1명이다. 일간 워싱턴 타임스는 미 연방 이민 당국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소위 '성역도시'(sanctuary city) 관할지역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대대적 기습 단속이었다며 "시카고와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록 카운티, 일리노이 주는 미 전역에서 불체자에 가장 관대한 정책을 가진 지자체"라고 전했다. 미 이민단속국 단속·추방 집행(ERO) /연합뉴스

시카고 지부 총책 리카르도 왕은 "성역도시들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약탈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 단속·추방 집행부 요원들의 수고에 의해 시카고는 조금 더 안전한 곳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앞서 지난달 9일부터 몇주간 뉴욕 시에서 단속을 벌여 모두 225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서 고령화 등으로 2025년에 노동현장에서 부족한 인원은 건설 78만~93만명, 농업 4만6000~10만3000명 등으로 전망된다. 니혼케이자이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이민정책과는 다르지만, 정부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아베, 북미회담 전 트럼프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인 납치 협조 구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다음달 7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남북,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재연출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제반 사정이 허락하면 다음달 7일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미일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개최를 위해 조율이 진행되는) 북미정상회담을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문제에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회담이 되도록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안하지만, 나는 북한 핵, 나쁜 무역 협상들, 보훈(장관)인생, 경제, 군 재건,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원룸 매매 (원룸전문)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원룸 18개, 안집1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12억8천만 (융 3억5천가능)

- ① 산정동 (1호코너 상가)(원룸 15개) (합 16개) 월세 580만 ▶ 매가 8억2천
- ②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 ③ 산정공원바로앞 (코너) 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 (최고급주택) 월세 550만 ▶ 매가 9억5천만

062-382-5500 010-6670-9800

상가 매매(수익형)

북구 용봉동 우미A.P.T/상대 1분(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상가건물 안집 있음)

보 1억6천 만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보5백 월40만) ▶ 시세 8천만-매매가 7천만
- ②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가 9억
- ③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융1억2천)
- ④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1개) ▶ 매가가 3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토지 추천

- 1)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 감평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
- 3) 화순 도곡면 (무인택)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평가 37억 → 최저가11억
- 4)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위아파트 위치 ▶ 감평가 6억 → 최저가 3억3천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주택 공장/기타

- ①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 → 최저가 3억3천만
- ② 남구 백운동 (빌라)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 ③ 북구 신안동 (6층 숙박시설)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9천
- ④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평가 19억9천 → 최저가 19억9천
- ⑤ 남구 주월동 (마티) 토 108평 건 88평 감평가 4억9천 → 최저가 1억
- ⑥ 남구 반월동 광산로(34평)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⑦ 남구 반월동 (리조트) 토 22평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9천
- ⑧ 북구 신안동 (숙박시설) 토 117평 건 338평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4억9천
- ⑨ 서구 양동(숙박시설) 토 138평 건 427평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9천
- ⑩ 서구 치평동 대우아파트 (23평) 시세 1억9천 → 최저가 1억9천
- ⑪ 남구 주월동(주택) 토 40평 건 42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7천
- ⑫ 광산구 도산동(주택) 토 66평 건 26평 감평가 7천3백 → 최저가 7천3백
- ⑬ 북구 신안동(숙박시설) 토 117평 건 338평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4억9천
- ⑭ 서구 양동(숙박시설) 토 138평 건 427평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9천
- ⑮ 광산구 월전동(공동) 토 126평 건 88평 감평가 34억 → 최저가 34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6월 개강)

-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